총탄에 유리 깨진 차 근처에서 벌컨포 탄피 주워

5·18재단 "공격용 코브라 헬기 난사 물증"

습득 경위 공개…나주시민, 헬기사격 소문 듣고 한두재서 발견

"헬기사격 소문을 듣고 마을 옆 한두재로 가봤더니 유리창이 총탄에 깨진 차가 서있고 탄피가 주변에 있더라."

37년 만에 세상에 나온 벌컨포 탄피 3점 습득 경위가 16일 공개되면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사격(기관총 난사)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시민에게서 지난 8일 기증받은 탄피를 5·18기념재단에게서 사진으로 넘겨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반응, 5·18 당시 한두재(광주~나주남평 구간 고개) 부근에서 헬기 사격 증언 등이 보태지면서 계엄군 기총소사설(說)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초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이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판명 난 적은 있으나 기총소사의 증거로 유력시되는 벌컨포 탄피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당시 선반공으로 일하던 김모(62·나주시)씨는 지난 1980년 5월 24일께 나주 남평 집을 나서 한두재를 찾았다. 마을 주민들에게서 "군인들이 탄 헬기가 저쪽에서 총을 마구 쐈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

고개 정상과 300m쯤 떨어진 도로에 멈춰진 검은색 차량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차량 전면 유리창이 총탄에 깨졌고 곳곳에 총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길 옆에서 잠시 소변을 보던 김씨의 눈에 갑자기 번쩍이는 물체가 들어왔다. 탄피였다. 김씨가 주운 탄피는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성냥 크기만한 소총 탄피가 아닌 모나미 볼펜 크기에 육박하고 두께도 언뜻 봐도 2~3배는 돼 보였다. 그는 호주머니에 탄피를 넣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놈들, 진짜 헬기로 쐈나"라는 말만 되뇌었다.

10여년 전 5·18단체에 '예사롭지 않은 탄피' 얘기를 했지만 그 때만 해도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 벌컨포 탄피 발견 지점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5·18 계엄군 헬기사격 논란이 이슈화되자 김씨는 지인을 통해 5·18재단에 탄피 기증하고 습득 경위도 전달했다.

탄피 크기와 사진, 습득 경위 등을 보고 들은 국과수 측은 "M61벌컨포 탄피가 유력해보인다. 광주시를 통해 분석을 의뢰하면 사용시기와 탄환 종류를 정밀 감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은 통화에서 "어…, 어….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5·18재단 관계자 설명이다.

5·18재단은 벌컨포가 장착된 AH-1J(일명 코브라헬기)가 5·18 당시 광주에 2대 출격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자료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에 투입된 육군 31항공단 103항공대의 AH-1J(일명 코브라)에 장착돼 있었다는 점, 5·18 당시 20㎜ 벌컨포 탄환 1500발이 항공대에 보급됐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서 최근 공개된 벌컨포 탄피 3점이 계엄군이 운용한 코브라 헬기의 난사 흔적의 물증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2군 계엄상황일지'에는 1980년 5월24일 AH-1J 2대와 500MD 2대가 지상 엄호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점, 탄피가 발견된 한두재 인근 (효천역)에서 공수부대와 향토사단 군인 간 오인사격이 있었고 인근에서 헬기사격을 요청했던 군 기록이 있었다는 점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실재했었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계엄군 헬기 사격 부인했던 국방부 입장 바뀔까

광주시에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요청 주목…市, 자료 제공

국방부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감정서를 광주시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5·18 당시 계엄군 헬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 유력시되는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를 국방부에서 요청해와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제공한 자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 5일간에 걸쳐 전일빌딩 외벽과 내부를 대상으로 한 국과수의 정밀감식 감정 보고서다. 지난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을 광주시의 의뢰로 국과수가 조사한 최종 감정서 전문이다.

광주시는 국방부의 전일빌딩 총탄 감정서 제공 요청 배경에 대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국방부 자체 검증 ▲김동철 의원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 등 2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방위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는 일관되게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만큼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전일빌딩 외벽에 있는 35개의 탄흔과 빌딩 10층 내부 옛 전일방송실에서 발견된 150개의 탄흔 등 총 185개의 탄흔 위치와 형태, 탄도 등이 상세하게 언급됐다.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선 "헬기 사격 흔적이 매우 유력하고 기관총 사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사실상 헬기 사격 흔적이라고 결론내렸다. 박남선 5·18 시민군 상황실장은 "도청을 사수하면서 5월 27일 새벽 4시께 계엄군 헬기가 도청 앞 전일빌딩을 향해 기관총으로 난사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최근 광주일보에 증언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국방부에 국과수 감정서 파일을 제공한 데 이어 국방부가 5·18민중항쟁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책자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수만 전 회장 5·18 일지 10만페이지 분량 DB 구축

10만 페이지 분량의 5·18민중항쟁 기록물을 일지 형태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가 완성됐다. 5·18기념재단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DB 형태로 구축한 5·18 일지를 공개하고 자료 검색 시연회를 열었다. 〈사진〉

DB는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이 국회·정부기록물보관소·육군본부·검찰·기무사 등에서 30여 년간 수집한 5·18 기록물을 컴퓨터 파일로 재구성한 자료다. /김진수기자 jeans@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 장성민 대선 출마 용납 못해"

5월단체, 천정배 전 대표 간담회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사진·55〉 전 국회의원에 대해 5·18단체장들이 16일"(대선 출마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등 3단체장(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은 이날 5·18기념재단을 찾은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장 전 의원은 자신이 과거 진행하던 종편 TV 프로그램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탈북자의 음모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유족회장은 "고흥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권을 노린다면 5월 단체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단체장들의 장 전 의원 대선 출마 반대 입장과 국민의당 입당 계획에 대해 천 전 공동대표는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일탈 공무원 2제

자동차 이전등록 전자수입인지 복사해 부정사용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수입인지를 부정 사용한 구청 직원이 적발됐다. 광주시 남구는 16일 교통과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39)씨에 대한 감사결과 횡령 혐의가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원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장당 3000원에 발급한 전자수입인지 원본을 복사해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7만4000여 건의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조사한 결과 그가 처리한 이전등록 업무 100건 가운데 70~80건이 복사된 전자수입인지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전자수입인지 발급처에서 정가의 97% 수준에 환매가 이뤄지는 점을 토대로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A씨는 자동차 등록증 발급 업무를 맡은 지난 2015년 초 전자수입인지 고유번호 조회와 자동차 이전등록 간 전산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됐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광주시 파견 행자부 간부공무원이 교통사고 뺑소니

광주북부경찰은 16일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정자치부 4급 서기관 A(53)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5분께 광주시 북구 빛고을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 B(여·41)씨가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광주시 산하 조직으로 파견 온 행자부 간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보험사 직원을 불러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보험사 직원이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추워 처리를 맡기고 귀가했다"며 뺑소니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A씨가"맥주 1잔 정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검거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집 경매 넘어가자 치매 노모 버려두고 돈만 챙겨 도망간 아들

쌍나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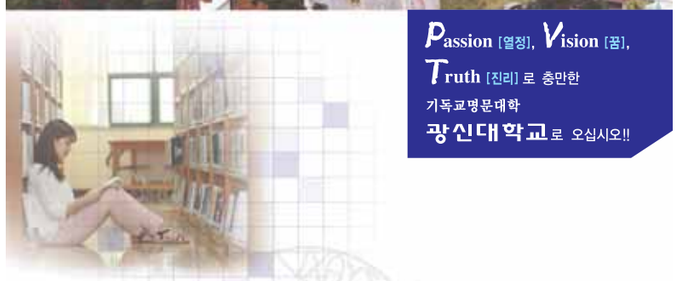
○…빚더미에 허덕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남겨놓고 집값 몫으로 받은 수억원을 챙겨 떠나버린 '비정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자 경매배당금 2억8000만원을 받아 혼자 이사를 한데다 사회복지사가 수차례 연락했는데도 모른척.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김씨에게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유일한 부양의무자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모친을 방치,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고 질타. /연합뉴스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8(토) ~ 21(화)
• 전형일 : 2017. 2. 22(수)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 22(수) 오전 10시~18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22(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